

## 고려조 기법의 조선시대 광다회 복원 고찰

임금희\* · 조우현<sup>+</sup>

성균관대학교 디자인학과 석사\* ·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sup>+</sup>

### A Review of the Restoration of Braid Belt, Gwangdahoe by Goryeoyo Weaving Method in Joseon Dynasty

Keum-Hee Lim\* · Woo-Hyun Cho<sup>+</sup>

Maste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sup>+</sup>

(투고일: 2009. 5. 29, 심사(수정)일: 2009. 7. 15, 게재확정일: 2009. 7. 21)

####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find out the special twine technique of flat string and refers to historical documents, records, artifacts of excavated articles, and real materials. In Japan weaved cloth is called Jomul or Jonue and these methods were brought to Japan from Korea during *Aska* Period(645~710) and *Nara* Period(710~794). Among those knot methods, the 1/1 knot was written as a *Shillajo* on a documentary record at *Heian* Period, *Engisik*, and *Samdaesillok* which is a historic document from King *Saiya* to King *Gowooko*(858~887). Also 2/2 knot weaving was recorded as *Goryeoyo* that the technique originated for a long time in Japan. During the *Joseon* Dynasty, *Gunmok* was written as *Dahoi*, and *Gwangdahoe*, which means wide and flat *Gunmok*, was the name of *Dae*(Belt). The frame for the twine *Gwangdahoe* is no longer in Korea, but only can be found in Japan as a *Goraiwoochi* loom for *Shillajo* and *Goryeoyo* from Korea. There are currently artifacts by the techniques of *Shillajo* and *Goryeoyo* that were excavated in 15~17C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was looked into the artifacts from 6~8C in ShÖso-in, and the features of *Dae* (Belt) weaved by *Shillajo* and *Goryeoyo* case method. *Gwangdahoe* excavated artifacts in the mid Jeosun Dynasty was restored by the process of *Goryeoyo* weaving method.

Key words: *Goryeoyo*(高麗組), *Gwangdahoe*(廣多繪), restoration(복원), weaving method(기법)

## I. 서론

대(帶)는 의복(衣服)의 상의나 하의, 포(袍)류의 허리를 결속하여 신체의 중심을 안정시키고 활동력을 증가시키는 기능적인 역할에서, 신분(身分)의 등급(等級)을 나타내기 위하여 재료, 형태, 장식물을 사용하였고<sup>1)</sup> 또한 주술물로서의 역할도 겸하였다.

우리나라 대(帶)는 재료에 따라 금속과대, 옥대(玉帶), 서대(犀帶), 각대(角帶), 혁대(革帶), 사대(絲帶) 등이 있다.

이 중 사대는 견사가 재료가 되는 대를 말한다. 사대에는 다시 직물(織物)을 재료로 한 포대(布帶)와 끈목을 재료로 하는 도대(條帶)로 나눌 수 있는데<sup>2)</sup>, 사대의 명칭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불렸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조(組), 도(條), 다회(多繪) 등으로 불렸다.

본 연구에서는 사대 중에서 폭이 넓고 납작하며 사선염염의 광다회(廣多繪)를 그 연구대상으로 한다.

조선시대에는 끈목을 다회라고 표기하였으며 문무관료들이 왕의 행차를 수행하거나 외국에 사신으로 파견되는 경우 등에 입는 용복(戎服)의 대로 쓰인 것을 광다회라고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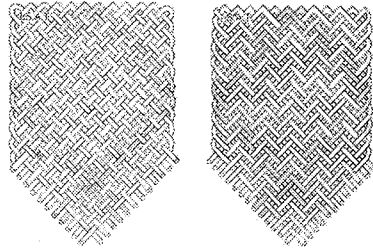
최근 김시재는 「조선시대 조대(條帶)의 형태적 특징과 제작법에 관한 연구」에서 조선시대 조대의 구체적인 명칭을 문헌상 또는 초상화를 통하여 정리하였고 품계에 따른 조대의 색깔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였다. 대에 대한 그간의 연구성과 가운데, 조선시대 가장 유행했던 사대 중 광다회의 조직에 대한 종류와 제작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은 미미하였다.

이에 본고는 고대 매듭끈 즉 조물(組物)의 조직(組織)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사선염염 조직에 대한 각 문헌과 유물자료를 고찰하여 제작법을 복원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대 기법이 주변국 일본에 전달되어진 과정과 국내·외에 소장된 조물의 기법을 복원하는데 그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 II. 신라조(新羅組) · 고려조(高麗組)의 명칭

염염직의 조물(組物)기법 중에 신라조 · 고려조라는 조물명칭이 있으나 고대 한국문헌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요즘에는 한 가닥은 위로 다음 한 가닥은 아래로 엮어지는 기법을 신라조 1/1 염염편조라 하고 <그림 1>, 두 가닥은 위로 두 가닥은 아래로 반복하여 엮어지는 기법을 고려조 2/2 염염편조 <그림 2>라고 부르고 있다.



<그림 1> 좌-1/1염염편조  
<그림 2> 우-2/2염염편조  
- 한국직물오천년, p. 62.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엮어지는 방법에 일정한 규칙이 생기거나 색을 교차하여 문양을 넣기도 하고 구슬이나 유리알같은 부재를 사용하여 장식성을 부과하여 발전되어져 왔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신라조, 고려조, 고라이다이(高麗台)라는 조물명과 직기명을 시대를 역행하여 연구해 본 바 이는 지역의 명칭을 따서 지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丸台の組紐』에 '400년경 오진천황(應神天皇) 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간 아치노오미(漢氏の祖)와 유즈키노키미(秦氏の祖)가 많은 수공업 기술자를 백제(百濟)와 남조(南朝)에서 초대하여 양잠(養蠶)이나 직조(織造)의 신기술을 전했다. 그리고 끈목, 구미오비(組紐)의 기술이 이 시대에 들어온 것 같다.'<sup>3)</sup>고 기록되어 있다.

『日本組紐古技法の研究』에 '아스카시대(飛鳥時代) (645-710)의 법륭사(法隆寺)에 헌납된 보물 중 당조

(唐組)의 드리개와 정창원(正倉院)의 보물 중 조사 계측된 것만 해도 300개가 넘는 아주 우수하고 내력이 분명한 끈목이 많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끈목의 기술이 전해진 과정은 '킨메이천황(欽明天皇) 23년 즉 562년에 오오토 모사테히코(大伴狹手彥)가 고려에서 가지고 돌아온 섬유제품에 끈목이 있었으며 끈목의 기술자도 함께 초대되었다. 6세기의 한일관계로 보아 그 시대에 대륙의 문명이 끊임없이 일본에 전해진 바 끈목과 그 기능이 고려에서 전해진 과정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sup>4)</sup>라고 『日本組紐古技法の研究』에는 기록되어 있다.

또 『傳統の組紐』에는 “고려조의 홀조직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에서 아스카시대와 나라시대(奈良時代)에 전해졌으며 고려조의 겹조직은 에도시대(江戸時代)에 전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sup>5)</sup>

이 시대의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적 사료로 보았을 때 가야를 포함한 삼국시대에는 각 나라마다의 지역적 특성으로 양잠업(養蠶業)과 제직기술(製織技術), 천문학(天文學), 금속야금 및 세공기술, 건축부문, 인쇄 제지술 등이 발달하였으며 특히 한반도 남부에는 철기문화가 발달하여 철제련 능력과 토기 생산기술이 매우 발달하였다.

반면 『漢書地理志』, 『後漢書』에 “왜(倭)”라는 나라 이름이 나타난 것은 3세기말 국가 형태로 볼 수 있는 야마타이 소국연합이 세워지지만 최초국가로의 강력한 권력체제를 갖춘 것은 4세기말의 야마토 통일왕조 정권이다.

4세기경 통일국가이후 일본은 한반도에서 선진문화를 전수받아 급속도로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데 백제 근초고왕(4C)은 아직기, 왕인 등을 통해 한학과 유교를 전했으며 무령왕~성왕 이후는 불교문화와 궁, 절 등의 건축기술과 불녀, 야공, 양주인을 비롯해 와박사, 조사공 등의 건축기술자도 파견하였다.

이러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문헌자료로 비추어보아 우리나라의 조물과 조물기술자들에 의해 신라조와 고려조의 이름이 일본에 존재하며 그 기술을 일본에 전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 고대문화에 큰 영향을 끼쳐 아스카문화를 꽃 피우게 하는 바탕이 되었다.

### Ⅲ. 정창원(正倉院) 유물고찰

일본의 나라현(奈良縣) 도다이사(東大寺)에 있는 정창원은 왕실의 유물창고이다. 이곳에는 가치 있는 미술, 공예, 기록, 생활 등 각 방면에 걸친 물품들이 소장되어 있다. 8세기 나라시대부터 일본문화를 구체적으로 전하는 수많은 유품과 한국, 중국, 인도의 고대유물에 이르기까지 9천여 점이 소장되어 있어 일본이 세계 제일의 보고로 자랑하는 곳이다.

유물 가운데는 구양순(歐陽詢)의 진적(眞蹟) 병풍, 왕희지(王羲之), 헌지(獻之)부자의 진적, 신라민정(新羅民政)문서 등이 있다. 또한 정창원에는 752년 대불상인 노사나불의 개안식 때 대불상에 봉납한 구미오비(みおび)가 수십점 소장되어 있는데 구미오비는 황족, 고위 귀족들이 식전에 참석할 때 제1정장의 예를 갖추고 옷 위에 매서 앞으로 늘어뜨린 띠를 말한다. 구미오비의 조직을 보면 1간격 비조(飛比組)방법이 압도적이다. 이 1간격 비조의 직조방식을 헤이안시대(平安時代)(794-1160) 법령서인 『엔기시키(延喜式)』에는 신라조(新羅組)이라고 기록되어있으며 2간격 비조는 고려조(高麗組)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지과추요(止戈樞要)』에 기재되어있다.<sup>6)</sup> 현재 신라조와 고려조 유물은 범룡사와 정창원에 많이 남아있다.

또한 구미오비 색깔로 지위를 나타내는데 최고지위는 자색으로 띠의 바탕색 또는 주된 색이 자색이어야 하고 다음은 적색계, 청록색계, 황차색계통으로 지위를 나타낸다.

현재 완전한 형태의 구미오비가 20여점, 단편과 조각이 수십 점 소장되어 있다. 현존하는 구미오비의 조직으로 신라조(1/1)와 고려조(2/2), 당조(唐組)(2/1)로 실의 가닥수가 30여조에서 최대 103조까지이며 이는 구미오비의 넓이를 나타낸다.

신라조는 좌로 연사한 실과 우로 연사한 실을 일정한 규칙으로 놓고 나란히 짜이면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작용이 두 실을 안정시켜주므로 겹쳐져서 가늘어지는 일이 없고 표면이 매끄러워진다.

1200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최근 것으로 착각될 정도로 이 꼬임과 조직이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는 정창원의 구미오비는 높은 지혜의 산물이라 말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신라에서 전수한 귀중한 유산이다.<sup>7)</sup>

고려조는 어느 한쪽으로만 연사된 실로 -주로 Z꼬임- 2/2 형식의 조직이며 신라조에 비해 두텁다.

일본에서 제1정장인 예복에는 구미오비를 두 개를 매었는데 안쪽에 맨 것은 폭이 넓고 얇은 신라조의 구미오비이며 약간 가슴위로 올려 묶고 중앙에서 매듭지어 아래로 드리웠고 그 위에 고려조인 구미오비를 매어 겹을 꽃았을 것이며 신라조, 고려조 외에 2/1 비조가 있는데 화살 모양을 반대 방향으로 조직하는 기법이며 이것은 당조(唐組)이다.

우리나라 출토유물 중에는 1/1, 2/2의 혼합으로 짜인 유물이 단국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원시인의 뉴의로 생활용품이나 주술물을 매어 달던 띠가 문화가 발달하면서 재료, 모양이 다양해지고 엄격한 제도로서 계급을 표시하는 상징이 되었으며 띠는 옷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 정치 사회제도에도 깊은 관계가 있어 사회적 표상물 또는 그 민족의 귀중한 예술품으로 발전되어왔다.

『正倉院の組紐』에 수록된 유물 중 본 연구의 대상이 된 고려조의 유물은 4가지로,

첫째, 유물번호 中倉 九三 雜帶 六号의 유물<sup>8)</sup>은

<표 1> 정창원에 소장된 고려조(2/2)유물

번호	목차	유물번호	추	길이(mm)		바탕색	무늬색	실물자료
				폭(mm)				
1	縹地綠·黃鞆縹斜格子 二間組	中倉 九三 雜帶 六号	56추	1322	47	縹	綠·黃	 - 正倉院の組紐, 그림15
2	白茶地縹·鞆縹金茶 筋斜格子 二間組	中倉 九三 雜帶 一四号	74추	1830	50	白茶	縹	 - 正倉院の組紐, 그림17右
3	紫褐地白茶筋斜格子 二間組	中倉 九三 雜帶 四号	96추	2350	84	紫褐	白茶	 - 正倉院の組紐, 그림17左
4	白無地 二間組	中倉 九六 白組帶	68추	2080×43	?	白	-	 - 正倉院の組紐, 그림18
			32추	?				

길이 1322mm, 폭이 47mm이며 縹色 바탕에 綠·黃色 계열의 격자문의 문양으로 직조된 고려조이다. 직조할 때 필요한 추의 개수는 56개이다. 둘째, 유물번호 中倉 九三 雜帶 一四호의 유물<sup>9)</sup>은 길이 1830mm, 폭이 50mm이며 白茶色 바탕에 縹·色 계열의 무늬를 넣었으며 金茶色으로 힘줄의 포인트를 넣어 직조된 격자문양의 고려조이다. 직조할 때 필요한 추의 개수는 74개이다. 셋째, 유물번호 中倉 九三 雜帶 四호의 유물<sup>10)</sup>은 길이 2350mm, 폭이 84mm이며 紫褐色 바탕에 白茶色으로 힘줄 포인트를 넣어 직조된 격자문양의 고려조이다. 직조할 때 필요한 추의 개수는 96개이다. 넷째, 유물번호 中倉 九六 白組帶의 유물<sup>11)</sup>은 서로 다른 길이와 폭을 가진 유물이 끼워져 있다. 하나의 유물은 길이 2080mm, 폭이 43mm이며, 다른 하나는 끼워져 있는 유물이기 때문에 풀어서 확인할 수 없고 폭은 17mm이다. 바탕색과 무늬색이 구분되지 않고 또한 문양이 없이 직조되었으며 白色의 고려조이다. 직조할 때 필요한 추의 개수는 각각 68개와 32개이다.

정창원에 소장된 고려조(2/2)유물은 <표 1>과 같다.

실물관찰의 한계로 정창원 유물은 문헌자료와 사진자료로 확인한 바, 6~8세기경의 정창원 유물은 대부분 신라조 기법의 홀조직으로 30mm에서 95mm 정도의 너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길이는 착용자 신장의 길이와 매듭묶음의 기법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색상은 바탕과 무늬의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이상이 서로 다른 색의 조화를 이루고 문양은 격자문(格子文) 또는 산로문(山路文)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술은 직조 후 추에 감긴 나머지 실 세 가닥 또는 네 가닥을 1조로하여 땅거나 4絲기법으로 엮은 후 마지막 한 추에 남은 실로 묶어 처리하였다.

또한 신라조 기법은 S연과 Z연의 꼬임이 추 하나에 나란히 하여 직조되었다는 점은 1200여년의 오랜 세월동안 형태가 변해지지 않았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창원의 고려조 기법의 유물은 홀조직으로 격자문양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백무지(白無地)로 바탕색만 백색일 뿐 무늬색이 없는 유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술의 형태는 신라조의 형태와 비슷하고 조사대상 유물의 너비는 47mm에서 84mm이며 Z연 꼬임으로 기록되어 있다.

#### IV. 조선시대 광다회의 종류

조선시대 백관의 조복, 제복, 공복, 상복의 제(制)가 완성된 것은 세종 8년 의례상정소로 하여금 경제속육전(經濟續六典)을, 15년에 집현전(集賢殿)으로 하여금 오례의주(五禮儀註)를 28년에 상정시켰고 이를 세조대에 증보하여 제8대 예종 대에 경국대전(經國大典)으로 완성시켰다.

경국대전 예전(禮典) 의장(儀章)조에 기록된 바 1품에서 3품까지는 사복에 홍조아(弘條兒)를 띠었고, 4품에서 9품까지는 사복에 청조아(靑條兒)를 띠었으며, 향리(鄉吏)는 상복(常服)에 흑죽방랍(黑竹方笠)과 직령(直領)에 도아(條兒)를<sup>12)</sup>, 녹사(綠事)는 유각평정건(有角平頂巾)과 단령(團領)에 도아(條兒)를, 별감(別監)은 자건(紫巾, 세자궁은 청건)·청단령에 도아(條兒)를, 상복(常服)으로 주황초립(朱黃草笠)과 직령(直領)에 도아(條兒)를, 권내각차비(闕內各差備)는 청모(靑帽)와 직령에 도아(條兒)를, 나장(羅將)은 조건(皂巾)과 청반(靑半臂衣)에, 형조(刑曹), 사헌부(司憲府), 전옥서(典獄署)는 조단령(阜團領)에 사간원(司諫院)은 토황단령(土黃團領)에 도아(條兒)를, 조례(阜隸)는 조건(阜巾)과 청단령(靑團領), 공주(公主), 옹주(翁主), 수배자(隋陪者)는 초록단령(草綠團領)에 도아(條兒)를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sup>13)</sup>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왕조별 실로 짠 대의 명칭으로는 태종, 세종실록에 검철토환흑광조대(鉗鐵吐環黑廣條帶)<sup>14)</sup>, 향관토환다회(香串吐環多繪)<sup>15)</sup>와 현도옥조환대(懸刀玉條環帶)<sup>16)</sup>, 도환보대(條環寶帶)<sup>17)</sup>, 보장조환(寶裝條環)<sup>18)</sup>의 명칭과 도아(條兒)<sup>19)</sup>, 다회(多繪)의 명칭이 보이고 단종실록에는 옥환조대(玉環條帶)<sup>20)</sup>의 기록을 찾을 수 있었고 세조실록에는 유환세조(有環細條)<sup>21)</sup>, 대홍사대(大紅絲帶), 백옥삼조환구자사대(白玉鈹條環具紫絲帶)<sup>22)</sup>, 도환구대자(條環具帶子)<sup>23)</sup>, 도환(條環)<sup>24)</sup>, 도아, 홍사광조아(紅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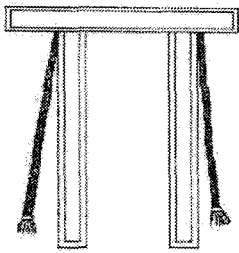
廣條兒<sup>25)</sup>, 홍사세조아(紅絲細條兒), 세조(細條), 옥조환(玉條環), 광조아조환구(廣條兒條環具)<sup>26)</sup>, 아청광조아차거조환구(鴉靑廣條兒硨磲條環具)<sup>27)</sup>, 아청광조아(鴉靑廣條兒)<sup>28)</sup>, 옥조환(玉條環)의 명칭을 찾았

고, 예종실록에 광조아조환구, 성종실록에 비견석토환구수낭(飛堅石吐環具繡囊)<sup>29)</sup>, 도아, 토환도자구조대(吐環刀子具條帶)<sup>30)</sup>, 도환홍대채낭(條環紅帶綵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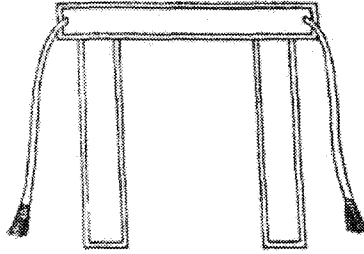
〈표 2〉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왕조별 실로 짠 사대(絲帶)의 명칭

각용자	용도	복식	명칭	색	폭	장식	시기	년도
太宗	進上品	-	紺鐵吐環黑廣條帶	黑	廣	紺鐵吐環	太宗 17年	1417
太宗	進上品	-	紺鐵吐環黑廣條帶	黑	廣	紺鐵吐環	太宗 17年	1417
婚姻之人(非帶銀者)	婚禮服	-	條兒	-	-	-	太宗 18年	1418
無職者	王女下嫁儀納采	笠子	條兒	-	-	-	世宗	1418~1450
無職者	宗親及文武官一品以下婚禮納采	笠子	條兒	-	-	-	世宗	1418~1450
庶人·不能備紗帽角帶者	宗親及文武官一品以下婚禮親迎	笠子	條兒	-	-	-	世宗	1418~1450
內侍	中宮鹵簿	紫衣/紅衣·青頭·鍍銀環·青行膝·雲鞋	多繪	-	-	-	世宗	1418~1450
內侍	返虜班次	紫衣/紅衣·青頭·鍍銀環·青行膝·雲鞋	多繪	-	-	-	世宗	1418~1450
東宮	進上品	-	香串吐環多繪	-	-	香串吐環	世宗 7年	1425
婚姻之人(非帶銀者)	婚禮服	-	條兒	-	-	-	世宗 11年	1429
無職者	王女下嫁儀納采	笠子	條兒	-	-	-	世宗 17年	1435
無職者	一品~庶人婚禮儀納采	笠子	條兒	-	-	-	世宗 17年	1435
世宗	便服	-	懸刀玉條環帶	-	-	懸刀玉條環	世宗 17年	1435
宣宗章皇帝	-	-	條環寶帶	-	-	條環	世宗 23年	1441
世子	王妃喪制 卒哭前 進見時	白直領衣·黑草笠·白靴	黑條兒	黑	-	-	世宗 28年	1446
宣宗章皇帝	-	-	寶裝條環	-	-	-	世宗 32年	1450
世祖	下賜品	-	玉環條帶	-	-	玉環	端宗 卽位年	1452
倭人·野人	下賜品	-	有環細條	-	細	環	世祖 1年	1455
咸吉道都節制使	下賜品	-	大紅絲帶	大紅	-	-	世祖 1年	1455
			白玉鍍條環具紫絲帶	紫	-	白玉鍍條環	世祖 1年	1455
野人	下賜品	-	條環具帶子	-	-	條環	世祖 2年	1456
野人	下賜品	-	條環	-	-	條環	世祖 3年	1457
野人	下賜品	-	條兒	-	-	-	世祖 4年	1458
野人	下賜品	-	紅絲廣條兒	紅	廣	-	世祖 4年	1458
			紅絲細條兒	紅	細	-	世祖 4年	1458
野人	下賜品	-	細條	-	細	-	世祖 4年	1458
野人	下賜品	-	條環	-	-	條環	世祖 4年	1458
倭人	下賜品	-	玉條環	-	-	玉條環	世祖 4年	1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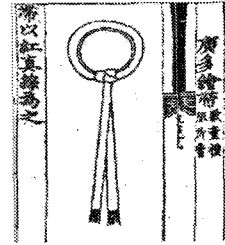
착용자	용도	복식	조아명칭	색	폭	장식	시기	년도
唐人	下賜品	-	廣條兒條環具	-	廣	條環	世祖 5年	1459
野人	下賜品	-	紅絲帶	紅	-	-	世祖 5年	1459
野人	下賜品	-	條環	-	-	條環	世祖 5年	1459
唐人	下賜品	-	廣條兒條環具	-	廣	條環	世祖 5年	1459
明使臣	下賜品	-	鴉青廣條兒碑磔條環具	鴉青	廣	碑磔條環	世祖 6年	1460
王世子	初出服	鴉青直領	條帶	-	-	-	顯宗 11年	1670
王世子	喪服 卒哭前 進見時	白直領衣·黑笠·白 皮靴	黑條兒	黑	-	-	肅宗 27年	1701
王世子	學生服	青衿·軟頭巾	細條帶	-	細	-	英祖 18年	1742
王	小帶	冕服·絳紗袍·大帶	深青絲條兒	深青	-	-	英祖 19年	1743
王	-	冕服·絳紗袍·大帶 (小帶用)	深青絲條兒	深青	-	-	英祖 19年	1743
		冕服·絳紗袍·大帶 (小帶用)	深青廣多繪	深青	廣	-	英祖 19年	1743
三年之內 諸臣服盡 之前	小科	布裹·軟巾·布衫	白條帶	白	-	-	英祖 33年	1757
王世子	冠禮	鴉青直領	條帶	-	-	-	純祖 19年	1819
百官	私服	窄袖衣·戰服	絲帶	-	-	-	高宗 21年	1884
無論貴賤	私服·堂上官	-	絲帶	紅紫	-	-	高宗 21年	1884
	私服·堂下官	-	絲帶	青綠	-	-	高宗 21年	1884
朝官 士庶人	燕居私服	漆笠·褶護	絲帶	-	-	-	高宗 31年	1894
		漆笠·周衣	絲帶	-	-	-	高宗 31年	1894
宮內府 大臣· 朝臣 以下	通常服	周衣·褶護	絲帶	-	-	-	高宗 32年	1895
皇帝·皇太 子	遷陵時 莽居服	黑笠·白直領衣	白條兒	白	-	-	高宗 37年	1900
使臣	膳賜物	-	鴉青廣條兒	鴉青	廣	-	世祖 13年	1467
都摠使	下賜品	-	玉條環	-	-	玉條環	世祖 13年	1467
野人	下賜品	-	廣條兒條環具	-	廣	條環	睿宗 1年	1469
宗貞國使 送	下賜品	-	飛堅石吐環具繡囊	-	-	飛堅石吐環 繡囊	成宗 3年	1472
婚姻之人 紗帽角帶 不能備	-	笠子	條兒	-	-	-	成宗 9年	1478
野人	下賜品	-	吐環刀子具條帶	-	-	吐環刀子	成宗 14年	1483
野人	下賜品	-	條環紅帶綵囊	紅	-	條環 綵囊	成宗 14年	1483
			條環綠帶綵囊	綠	-	條環 綵囊	成宗 14年	1483
中禁	官服	-	鍍金吐環	-	-	鍍金吐環	成宗 15年	1484
野人	下賜品	-	大紅多繪條環綵囊具	大紅	-	條環 綵囊	成宗 16年	1485
野人	下賜品	-	半紅多繪條環綵囊具	半紅	-	條環 綵囊	成宗 16年	1485
野人	下賜品	-	大紅多繪條環綵囊具	大紅	-	條環 綵囊	成宗 17年	1486
野人	下賜品	-	燦紅多繪條環綵囊具	燦紅	-	條環 綵囊	成宗 17年	1486
中國	進獻品	-	條環	-	-	條環	成宗 17年	1486
王世子	喪服 大王謁見	白直領黑笠白靴	黑條兒	黑	-	-	燕山 4年	1498
世子	-	-	白玉吐環多繪具	-	-	白玉吐環	中宗 35年	1540
百官	戎服	黑笠·貼裹	廣絲帶	-	廣	-	宣祖 25年	1592
元孫	喪服 進見時	白直領·黑笠·白靴	黑條兒	黑	-	-	仁祖 23年	16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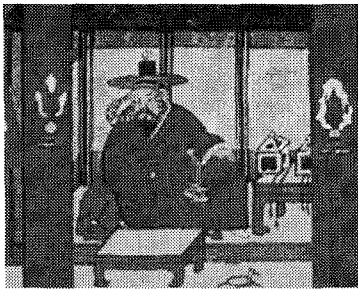
〈그림 3〉 『세종실록 오례의』  
길례 서례 관면도 면복 대대  
- 조선시대 조대의 형태적 특징과 제작법에 관한 연구, p.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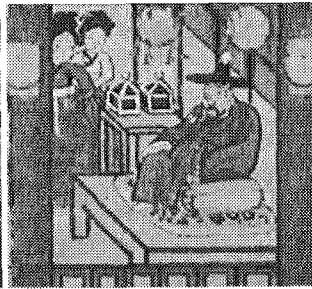
〈그림 4〉 『경모궁의궤』 제복도설  
왕·왕세자 면복 대대



〈그림 5〉 약학계법  
관복도설 광다회대  
- 끈목·매듭, p. 29.



〈그림 6〉 부벽투연회도



〈그림 7〉 월야선유도

-전통남자장신구, p. 80, 81.

도환늑대채낭(條環綠帶綵囊), 도금토환(鍍金吐環), 대홍다회조환채낭구(大紅多繪條環綵囊具)<sup>31)</sup>, 반홍다회조환채낭구(半紅多繪條環綵囊具)<sup>32)</sup>, 도환의 명칭을 연산실록에 흑조아(黑條兒), 증종실록에 백옥토환다회구(白玉吐環多繪具)<sup>33)</sup>, 선조실록에 광사대(廣絲帶)<sup>34)</sup>, 인조실록에 흑조아, 현종실록에 도대(條帶)<sup>35)</sup>, 숙종실록에 도아, 영조실록에 세조대(細條帶) 심청사조아(深靑絲條兒)<sup>36)</sup>, 심청광다회(深靑廣多繪)<sup>37)</sup>, 백조대(白條帶), 순조실록에 도대, 고종실록에 사대, 백조아(白條兒)라는 명칭을 찾을 수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왕조별 실로 짠 대의 명칭을 정리하면 <표 2><sup>38)</sup>와 같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는 실로 짠 대의 명칭으로 도아, 도대, 다회 등의 명칭앞에 홍, 청, 자, 흑 등의 색명을 붙이거나 광(廣) 또는 세(細)자를 붙여 대의 폭이 넓고 좁음을 표현하여 기록되어져 있다.

또한 이러한 명칭 중 검철토환흑광조대, 향관토환

다회, 광조아조환구, 검철토환흑광조대, 백옥삼조환구 자사대, 옥조환, 아청광조아차거조환구, 비견석토환구 수낭, 도금토환, 백옥토환다회구 등 도대의 명칭과 함께 쓰여 대의 명칭으로 사용되거나 검철, 옥, 차거, 비견석 등 다양한 보석류를 사용하여 화려하게 꾸민 고리형태장식인 도환의 재료가 명칭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도환에 매단 장식이 명칭으로 사용된 현도옥조환대, 토환도자구조대, 다회조환채낭구 등의 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종실록 오례의(五禮儀)』 길례 서례 관면도<그림 3>와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에는 면복에 착용하는 대대(大帶)의 도해<그림 4>가 있는데 양옆으로 늘어진 사선위음직으로 보이는 끈목이 소대(小帶)로 생각된다.<sup>39)</sup>

또 『증보문헌비고』 권 79에는 숙종 39년(1713) 면복의 대대끈을 심청광다회(深靑廣多繪)로 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왕실의 중요행사가 있을 때마다 행사의



날짜 사례, 헌장, 제작, 사체(史體), 부구 등을 갖추어 기록한 『가례도감의궤』에는 왕세자빈과 황태자빈의 법복(法服), 의대(衣帶)의 폐슬(蔽膝)에 오색진사(五色眞絲)로 짠 오색다회(五色多繪)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

『영조실록』에 왕의 면복을 개정하면서 강사포(絳紗袍)의 대대(大帶)에 매는 소대(小帶)로 심청사조아(深靑絲條兒)를 사용했는데 숙종 39년에 고례에 의거하여 심청광다회(深靑廣多繪)로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sup>40)</sup>

조선후기 궁중에서 왕이나 왕비, 왕대비의 진찬한 내용을 기록한 진찬의궤에 나타나는 다회는 주로 자색(紫色)과 홍색(紅色)을 사용하였으며 대(帶)나 영자(纓子)의 용도로 사용되고 한삼 등에 장식하기도 하였다.

선조 25년(1592) 4월에 응복 착용령을 내렸다.<sup>41)</sup> 이는 몸을 민첩하게 하기 위함인데 왕이 능에 갈 때나 거동할 때 국난을 당했을 때 흑립을 쓰고, 철릭을 입고 광다회를 띠고 화를 신고 검을 차는 것은 신하와 같다. 세종7년 실록에 의하면 왕의 행차에 위군사(衛軍士)가 철릭을 입었다고 하는데 색에 관한 기록은 없고 입진왜란, 정묘란, 병자란 때 철릭을 문무관의 용복으로 정하면서 색을 정하지 않았으나 중종 때의 홍색 승상 풍조가 이어져 홍색을 많이 입었다.

『속대전』에 당상관은 청색·당하관은 푸른빛이 도는 검은색 교의로 행차할 때는 홍색으로 정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순조 34년에 홍 철릭을 청 철릭으로 개정하였고 대로 홍색광다회(紅色廣多繪)와 청색광다회(靑色廣多繪)를 착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악학궤범 제9권 관복도설』의 복식 중 가동의 예복(禮服)에 두르는 홍색 명주실로 짠 광다회의 설명과 그림(그림 5)을 제시하고 있는데 띠는 넓으며 좌우 양 끝에 술이 달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벽루연회도(浮碧樓宴會圖: 평양감사향연도)』(그림 6)와 『월야선유도(月夜船遊圖: 평양감사향연도)』(그림 7)는 김홍도의 그림으로 평안도 감찰사가 부임하여 베풀어진 환영연회를 담은 것이다. 감사는 흑립에 남색 철릭을 입고 홍광다회(紅廣多繪)를 띠어 대단(帶端)을 길게 늘어뜨렸다.

이밖에 『대동야승(大東野乘)』에 광다회는 승려들이 띠던 것이므로 당시 선비들 사이에서 이것이 유행하는 풍조를 우려하는 기록이 있는 바 사대 중 광다회는 조선시대 궁중을 비롯하여 선비, 악공, 승려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에 걸쳐 유행하던 대였음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유물을 보면 능조직 광다회는 연대가 이른 것일수록 끝부분의 망장식이 복잡하고 더 아름다우며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술의 끝부분은 손으로 비벼 꼬아 만든 것으로 현대의 술과는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다.

## V. 조선시대 출토유물 고찰

조선시대 출토유물 중 광다회로 분류된 가장 이른 유물은 경기도 양평 원주 변씨 변수(1447-1524) 묘에서 출토된 광다회이다. 변수는 1469년에 무과에 급제하였고, 1476년 중시(무과대과) 급제, 훈원원정에 임명, 1478년 공조참의, 1479-1505년 병조참지, 승정원 동부승지, 좌수지, 호조·병조·형조·공조 참의, 충청·경상·함경 삼도의 절도사, 1506~1523년 종중반정에 참여, 정국공신(2등)·가선대부(종2품)를 지냈다. 변수 묘에서 출토된 복식유물은 단령 2점, 철릭 13점, 요선철릭 3점, 답호 7점, 저고리 1점, 바지 2점, 모자 1점과 광다회 1점이다. 이 광다회는 전체길이 374cm에 너비 2.5cm이고 술길이는 6cm(술머리 2cm 포함)이며 술머리에 망장식이 있다.

경북 영주시 의성김씨 김흠조(1461-1528) 묘에서 광다회 1점이 출토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김흠조는 1501년(연산군 7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1505년 한림을 지냈다. 이후 1507년(중종 2년) 예문관 봉고, 1509년 8월 언양현감, 1513년(중종 8년) 6월 지평, 1521년(중종 16년) 첨정, 1525년(중종 20년) 제주 목사를 거쳐 1526년(중종 21년) 12월 장예원 판결사에 임명되었다. 김흠조 묘에서 출토된 복식은 단령 7점, 직령 2점, 답호 11점, 철릭 12점, 상의류 6점, 하의류 8점, 모자 1점, 버선 3켤레, 광다회 1점 등이었다. 이 광다회는 길이 236cm에 너비 2cm이고 술길이는 7.5cm(술머리 2cm 포함)이며 망장식

이 되어있으며 색상은 푸른빛이 남아있었다.<sup>42)</sup>

경기도 일영 소재 고령 신씨 군수공 여관의 묘에서 광다회가 출토되었다. 신여관(申汝灌)은 수의로 단령을 입고 있었는데, 여기 광다회가 둘러져 있었다. 신여관은 무과에 급제하여 경원판관과 보성군수를 역임했으며, 55세에 졸하였다.<sup>43)</sup> 신여관 묘에서 출토된 복식은 단령 1점, 철릭 10점, 액주름 1점, 답호 3점, 장옷 2점, 직령 3점, 저고리 3점, 개당고 3점, 모자 2점, 광다회 1점 등이었다. 이 중 광다회는 총길이 224cm, 너비 2.5cm에, 술길이는 9.5cm(술머리 포함 4cm)이었으며 술머리에 망장식이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경기도 김포시 벽진이씨 이석명(1513-1583)의 묘에서 2종류의 대가 출토되었는데 그 중 1점은 운문단 포백대이고, 1점은 광다회이다. 이석명은 종4품 문관을 지냈다. 이석명 묘에서 출토된 복식은 도포 1점, 직령 1점, 답호 1점, 철릭 8점, 액주름 2점, 저고리 1점, 바지 1점, 포백대 1점, 광다회 1점 등이다. 이 중 광다회는 총길이 155.5cm, 너비 1.9cm이고 술 길이는 8cm(술머리 2.5cm 포함)이었으며 술머리에 망장식이 있었다. 끊어진 상태로 수습되었는데 술머리 망장식 안쪽에 금의 흔적이 보였으나 세탁과 안서 떨어져 나갔다. 이 조대는 습의 일습과 함께 들어있었으므로 습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습의 일습이 덩어리 상태로 수습되었기 때문에 이 대(帶)가 맨 위에 입혀진 답호에 둘러져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sup>44)</sup>

2001년 9월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어비리 토원곡에서 이장작업시 청송 심씨 심수륜(1534~1589)의 묘에서 광다회가 출토되었다. 심수륜은 세종의 국구(國舅)인 안효공·심온(沈溫)의 후손으로 벼슬을 정9품 종사랑을 지냈다. 심수륜 묘에서는 단령, 답호, 철릭, 액주름을 비롯하여 총 46점의 복식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중 광다회는 직령에 둘러 소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총 길이 232.5cm, 너비 1.2cm이며, 술 길이는 9cm(술머리 2.5cm 포함)로 망장식이 있고 망장식 속에는 금편이 있다.<sup>45)</sup>

안동 정상동 이용태(1556-1596) 묘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 대 3점 확인된다. 아청색광다회가 대렴용과 소렴용으로 2점이고 포대가 1점인데 대렴용 광다회 1점만이 수습되었다. 이용태는 명종 11년에 태어나서

선조 19년 31세로 요절한 인물이다. 소렴용 광다회는 상복인 단령에 둘러 동심결로 묶여 있었고, 대렴용 광다회는 우측 옆구리 부분에 놓여있었다. 3점의 대와 함께 출토된 유물은 단령 1점, 직령 5점, 철릭 7점, 장옷 2점, 액주름 2점, 남자 저고리 1점, 한삼 및 적삼 6점, 여자 저고리 3점, 동자 상의 1점, 개당고형 바지 4점, 합당고형 바지 6점, 단합당고 2점, 소형치마 1점, 버선 4켢레, 행전 3쌍, 모자 1점 등이다. 수습된 대렴용 광다회는 아직도 아청색이 짙게 남아있는데 총 길이는 200cm, 너비는 1.6cm이다. 술의 전체 길이는 8cm(술머리 3cm 포함)이다. 소렴용 아청 광다회는 완파된 상태로 수습이 불가능하였지만 대렴용 광다회와 유사했다.<sup>46)</sup>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에서 진주 강씨 강대호(1541-1624) 묘에서 광다회가 출토되었다. 강대호는 1541년(중종 36년)에 태어나 음직으로 등용되어 여러 관직을 거치고 1597년(선조 30년) 평양 부윤府尹(종2품)이 되었는데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하여 1603년(선조 36년)에는 원주목사로 임명되었고, 이듬해는 상주목사, 1605년(선조 38년)에는 임천군수(林川郡守)를 거쳐 1606년(선조 39년)에는 차사원이 되며, 광해군 2년에는 장예원판결사判6년르렀다. 함께 출토된 복식유물은 단령, 철릭, 방령, 직령, 액주름, 답호 등 약 30점이고 이 유물들은 조선시대 복식변화가 달라 16전(선양식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분수령인 임진왜란과 인조반정 등 어수선한 시기를 거치는 과도기의 특징이 잘 나타나있다. 함께 출토된 광다회는 전체길이 292cm, 너비는 2cm, 술길이는 24.5cm(술머리 7cm 포함), 술머리에는 망장식이 꾸며져 있다.

울산광역시 신정동 판교의 이천기(1610-1666)묘에서는 광다회 1점과 면포 솜 소모자, 명주 솜소모자 2점이 출토되었다. 이천기는 봉직랑을 지냈으며 영조 44년(1768)에 통훈대부악원정으로서 추증되었다. 이천기의 광다회는 수습당시 원형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으나 1997년 보수 후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되찾았다. 본래의 길이는 알 수 없으나 보수 후 양 끝에 달린 10cm 길이의 술을 포함하여 221cm가 되었고, 폭은 3cm이다. 술의 망장식부분의 길이는 11.5cm인데 안쪽에 금색 물질이 확인된다.<sup>47)</sup>

〈표 3〉 광다회 출토유물

(단위 : cm)

	묘주/신분	폭		술길이	조직	망술
		전체길이				
1	원주변씨 변수 (1447~1524) /종2품	2.5	374	6		
		374				
2	의성김씨 김홍조 (1461~1528) /장예원 판결사	2	236	7.5		
		236				
3	고령신씨 신여관 /보성군수	2.5	224	9.5		
		224				
4	벽진이씨 이석명 (1513~1583) 종4품 문관	1.9	155.5	8	-	
		155.5				
5	청송심씨 심수륜 (1534~1589) /정9품 종사랑	1.2	232.5	9		
		232.5				
6	이응태 (1556~1596)	1.6	200	8		
		200				
7	진주강씨 강대호 (1541~1624) /장예원 판결사	2	292	24.5		
		292				
8	학성 이천기 (1610~1666) /동훈대부악원정	3	221	10		
		221				
9	전주이씨 이익정 (1699~1782)	0.8	-	7		
		-				

광다회 출토유물 사진자료는 <표 3>과 같다.

조선시대 출토 유물은 주로 15-18세기의 광다회를 연구대상으로 했다. 주로 단색으로 직조되어 있었으나 이익정(1699-1782) 묘에서 출토된 광다회는 다른 광다회 유물과는 달리 바탕색과 무늬색의 두 가지 색상을 사용하여 직조되어짐을 확인하였다. 술의 장식도 같은 시대의 화려한 망장식이 아닌 푸서로 처리되어져 있다.

## VI. 고려조 광다회의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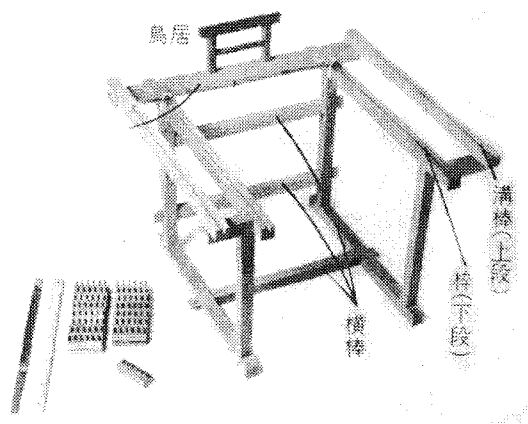
### 1. 고려타기의 구조와 명칭

고려조(2/2) 광다회를 복원하는 다회틀은 우리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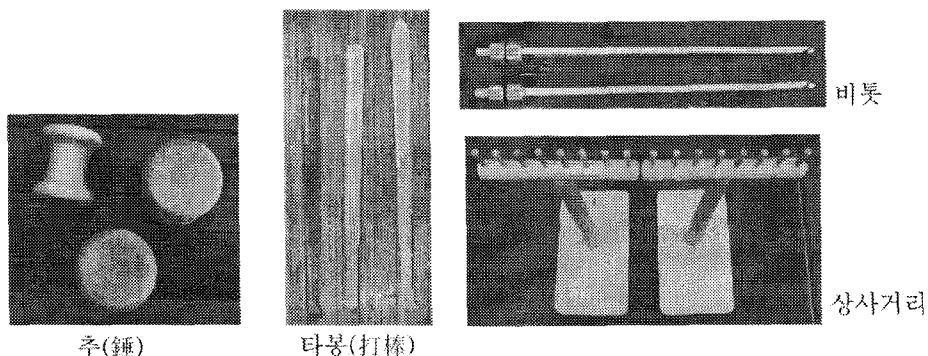
라에 현존하는 유물은 없다.

일본에서는 다카이다이(高台)<sup>48)</sup>, 고라이다이(高麗台)<sup>49)</sup>로 불리우고 우리나라에서는 형태가 같은 고려타기(高麗打器)<sup>50)</sup><그림 8>라고 하는 광다회 틀이 있다. 틀의 구조는 좌측과 우측에 상단과 하단으로 된 다이(대)가 있고, 대의 가장자리에는 긴 홈이 있어 고마(駒)를 이동할 수 있다. 가로대의 중앙에는 고정대(ちょうきよ, 鳥居)가 있어 좌우측으로 건 실의 중심을 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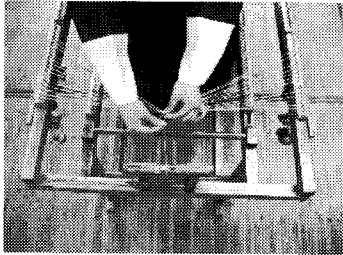
고려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려타기에 추와 타봉을 사용하며, 합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사거리와 비뿔이 필요하다.<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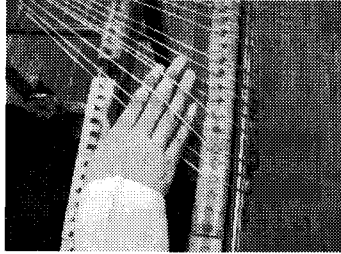
<그림 8> 고려타기-傳統의 組紐, p.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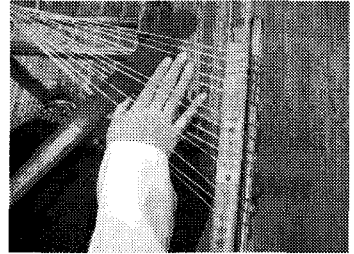
<그림 9> 고려타기의 부속 도구와 상사거리, 비뿔(필자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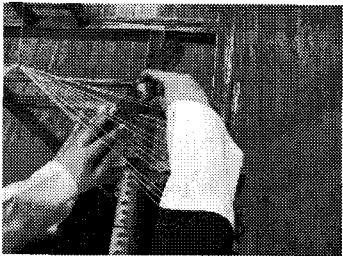
〈그림 10〉 제작과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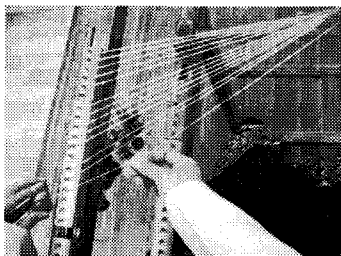
〈그림 11〉 제작과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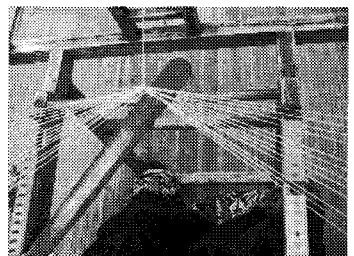
〈그림 12〉 제작과정 3



〈그림 13〉 제작과정 4



〈그림 14〉 제작과정 5



〈그림 15〉 제작과정 6

## 2. 고려조 광다회 제작 과정

고려조로 짠 광다회 직조과정은 크게 편조와 망수, 술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려조의 편조과정에 집중하여 복원하였다. 제작과정은 첫째, 실마름질, 둘째, 실감기 및 없기, 셋째, 고려조 광다회치기의 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

### 1) 실 마름질

유물의 실 종류와 색채를 파악하여 염색한다. 심수륜 출토유물의 광다회는 길이 232.5cm, 너비 1.2cm인 아청색의 고려조이다. 따라서 쪽으로 염색하였고, 사용된 실은 21m 12편 S연 150회 꼬임을 준 것으로 길이는 유물의 2배인 460cm로 마름하여 7가닥으로 합사하였다.

### 2) 실감기 및 실없기

유물의 문양에 따라 추의 수가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좌측보다 우측의 추의 수가 하나 더 많다. 본 심수륜 광다회의 경우, 좌측 12, 우측 13개의 추에

실을 감아 상단의 좌우에 수평으로 엮어 드리운다. 상단에 수평으로 건 실의 중심을 〈그림 10〉과 같이 묶어 고정했다.

### 3) 고려조 광다회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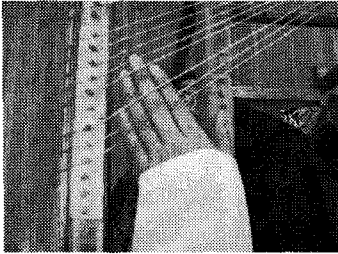
#### (1) 우측 직조 작업

〈그림 11〉과 같이 우측대의 1,2번 실은 오른손바닥 아래로, 3, 4번 실은 오른손등위로, 5,6번은 다시 손바닥 아래로, 7, 8번 손등위로, 9,10번은 손바닥 아래로 한다. 이 때 오른손등이 들어간 사이로 타봉을 밀어넣는다.〈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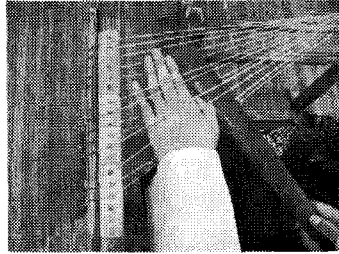
타봉과 오른손이 들어간 사이로 마지막 13번 추를 빼낸다.〈그림 13〉 빼낸 추 1개를 좌측 대의 시작점에 건다.〈그림 14〉 좌측사선방향으로 〈그림 15〉과 같이 타봉을 사용하여 2, 3번 쳐서 좌우 균형을 맞추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 (2) 좌측 직조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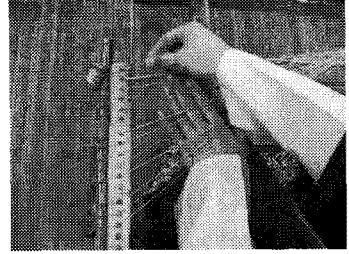
우측 직조 작업과 동일한 규칙으로 진행한다. 즉, 좌측대의 1,2번 실은 왼손바닥 아래로, 3, 4번 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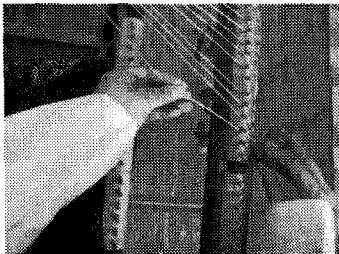
<그림 16> 제작과정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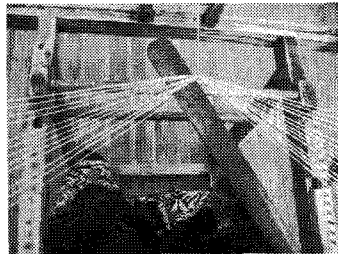
<그림 17> 제작과정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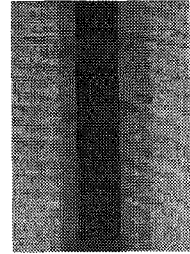
<그림 18> 제작과정 9



<그림 19> 제작과정 10



<그림 20> 제작과정 11



<그림 21> 제작된  
광다회 편조부분

왼손등위로 5,6번은 다시 손바닥 아래로, 7, 8번 손등 위로, 9,10번은 손바닥 아래로 한다.<그림 16> 왼손등이 들어간 규칙사이에 타봉을 넣는다.<그림 17> 펜 마지막 추를 오른손으로 잡는다.<그림 18>

왼손과 타봉이 들어간 사이로 좌측대의 맨 끝의 추를 빼내어 우측 시작점에 건다.<그림 19> 좌측의 규칙사이에 꽂혀있는 타봉을 사용하여 우측사선방향으로 2, 3번 쳐준다.<그림 20> 좌측과 우측을 교대로 반복하여 직조한다. 무늬는  $\diagup \diagdown \diagup \diagdown \diagup \diagdown$ 의 형태로 직조된다.<그림 21>

## Ⅶ. 결론

이상의 고려조 기법에 관한 문헌자료와 실물자료를 고찰하여 조선시대 광다회에 대한 복원을 시도하였다.

첫째, 고려조 기법 중 1/1방식을 신라조, 2/2방식을 고려조, 그 직조를 짤 수 있는 틀을 고라이다이(高麗台)라고 현재 일본에서 부르고 있는데 그 명칭이 전달되어진 과정과 시기는 5세기~7세기경 신라

조, 고려조 홀조직기법의 끈목과 끈목장인이 삼국에서 일본으로 초대되어 건너갔으며 일본의 헤이안시대(平安時代, 794-1160)의 법령서인 『엔기시키(延喜式)』와 역사서인 『삼대실록』에 신라조라는 명칭이 기록되어져 있고 고려조의 겹조직기법은 강호시대(16세기)에 전해졌으며 『止戈樞要』(19세기)에 고려조라는 조물명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본에서 4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조뉴장인인 도명신병위는 “정창원의 구미오비는 높은 지혜의 산물이며 한국에서 전수한 귀중한 유산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신라조, 고려조 기법은 우리선조들의 편조 기법이 확연하다.

둘째,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문헌 또는 주변국의 의복령의 사대에 대한 기록을 분류한바, 특히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기록된 관복에 따른 복식과 『조선왕조실록』에 왕조별 사대의 명칭에서는 도아(條兒), 도대(條帶), 다회(多繪), 소대(小帶), 조환(條環) 등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고 명칭 앞에 색명을 붙이거나 광 또는 세자를 붙여 사대의 품을 표현하였고 조환(條環), 토환(吐環)이라는 대에 따른 장신구의 명칭을 붙여 사대의 명칭 자체로 쓰

인 것을 볼 수 있었다.

셋째, 조선시대 출토유물(15~17세기)의 광다회의 조직은 대부분이 고려조의 홀조직 형태로 보인다.

이상의 이론적 고찰과 실물 조사에 의하여, 조선시대 16세기 심수륜 묘 출토의 광다회유물 1점을 선정하여, 그 중에서 편조 부분을 복원하였다. 복원은 고려타기(高麗打器)를 사용하여 고려조(高麗組) 기법에 의거하여 각 단계별로 과정을 제시하였다.

복원 과정은 소재와 기법이 자료에 철저히 의거하였다. 기법 가운데에서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일정한 규칙과 타봉에 의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각종 섬유류 다회의 체계적인 조사와 고려타기, 고라이다이(高麗台) 등 직조틀에 대한 집중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고려조 기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법의 광다회 복원은 완성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 도보선 (2006). *朝鮮時代 品帶에 관한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 1.
- 2) 김시재 (2008). *조선시대 조대(條帶)의 형태적 특징과 제작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1.
- 3) 多田牧子 (1996). *丸台の組紐*. 株式會社テキスト, p. 7.
- 4) 木下雅子 (1994). *日本組紐 古技法の 研究*. 株式會社京都書院, p. 3.
- 5) 山岡一晴 (昭和 63년). *傳統の組紐*. 大日本印刷株式會社, p. 51.
- 6) 道明新一郎 (2003). *아시아 傳統工藝의 美意識 探究*. 國際學術會議, p. 81.
- 7) *위의 책*, p. 81.
- 8) 宮內廳 (1973). *正倉院の組紐*, p. 48.
- 9) *위의 책*, p. 50.
- 10) *위의 책*, p. 47.
- 11) *위의 책*, p. 61.
- 12) *경국대전(經國大典) 卷三 禮典 儀章*
- 13) 유희경, 김문자 (2006). *한국복식문화사*. 敎文社, p. 223표 참조.
- 14) 太宗實錄 34卷, 17年 7月 17日 兪으며 黃儼遣伴人獻沙糖一器、衿錦一段、象筋二十雙、鉛鐵吐環黑廣條帶一腰.
- 15) 世宗實錄 29卷, 7年 7月 26日 齊賢進黑綠段子、紅白絹各一匹、中宮白絹、白羅各一匹、針絲脂粉鏡倍、東宮鴉青段子、藍羅白絹生納各一匹、繡囊一、香巾吐環多繪一.
- 16) 世宗實錄 68卷, 17年 4月 11日
- 17) 世宗實錄 92卷, 23年 1月 8日 宣宗章皇帝賜臣以所御條環寶帶, 賜臣世子某冠服玉帶.
- 18) 世宗實錄 127卷, 32年 2月 22日
- 19) 太宗實錄 35卷, 18年 5月 3日 禮曹上婚姻事宜: 一, 婚姻之人, 公然帶銀, 有乖定制. 自今本非帶銀者, 隨其時散, 用角帶條兒.
- 20) 端宗實錄 4卷, 卽位年 10月 5日 癸巳/賜世祖, 矢服弓弦各三、柳葉箭三十、大羽箭十二、汗替勒鞞四部、鼠腹皮冠一、貂皮耳掩一、鴉青段子袂圓 領二、草綠段子塔胡·柳青段子塔胡各一、藍段子帖裏·朱黃段子帖裏各一、白絹裏肚·紬裏肚各一、鴉青綿布袂 圓領·單圓領各一、茶褐紬塔胡·草綠紬塔胡各一、柳青紬帖裏·鴨頭綠紬帖裏·灰色紬帖裏各一、鴉青段子貂皮裘·貂皮短襖子各一、護膝一部、靴二雙、玉環條帶一、白草笠一、白綿布單帖裏一、紬秀褶衣一、三刀子一部、孤刀子五十部、大刀二、九櫟行器一部、銀三十二兩、九錢鞍具馬一匹、副使工曹判書李思哲, 貂皮、裘毛冠、耳掩各一.
- 21) 世祖實錄 2卷, 1年 12月 14日
- 22) 世祖實錄 2卷, 1年 8月 7日 是宴饒慰感吉道都節制使楊江. 仍賜黑草笠、網巾、貂冠、耳掩、段子衣、大紅絲帶、白玉鈸條環具紫絲帶、鍍金邊沈香帶、靴子、護膝、弓矢、刀劍.
- 23) 世祖實錄 3卷, 2年 2月 13日 賜道圓虎·豹皮各一張, 綿紬三匹, 豆里、阿具羶羊等, 各鞍具馬一匹、條環具帶子、角弓、刀子, 餘各賜物有差.
- 24) 世祖實錄 6卷, 3年 1月 16日 野人一等一人鞍具馬一匹、(條)(條)環一腰、刀子、藥囊; 二等八人馬各一匹、青木綿一匹、紅木綿二匹、角弓一張、條環一腰、刀子、藥囊, 三等二十一人無馬, 餘物上同, 四等八十二人, 各青紅木綿各二匹、刀子各一, 倭, 野人皆叩頭拜謝.
- 25) 世祖實錄 22卷, 6年 11月 24日 丙寅/賜野人知中樞院事李多弄哈、兪知中樞院事李家紅·浪金世等鞍具馬各一匹、綵囊、刀子、紅絲廣條兒各一、綿布各十四, 司直李都弄音等九人馬各一匹、彩囊、刀子、紅絲細條兒各一、綿布各七匹, 以赴戰時有功也.
- 26) 世祖實錄 15卷, 5年 2月 8日 唐人孫實、于順兒、李廣等辭, 賜黑布各二匹、綵囊、廣條兒條環具各一.
- 27) 世祖實錄 19卷, 6年 3月 9日 夕, 命都承旨尹子雲、兼判禮曹事金何, 贈明使及張敬各胡床一、彩花席八張、油紙席五張、理馬諸線一部、鞍具馬一匹、黑草笠一頂、貂皮一百張、土豹皮一張、鴉青木綿單圓領一、草綠紬袂帖裏一、大紅紬袂塔胡一、白紬袂 裏肚一、白絹衫兒一、黑麻布圓領一、白苧布帖裏一、白鹿皮夾金靴一、大紅段子護膝一、鴉青廣條兒磳磳條環具一、綵囊一、大刀一、五并刀子一部, 皆不受, 敬鞍子外皆受之.
- 28) 世祖實錄 43卷, 13年 9月 14日 命兼都承旨洪應, 以草笠一頂、鴉青段子豹皮虛胸、鴉青綿布圓領、鴉青綿布袂圓領、草綠綿紬袂塔胡、柳青綿紬襦帖裏、柳青綿紬襦塔胡、草綠綿紬襦帖裏、白豚紬襦裏肚、白綿布單帖裏各一領、白絹衫兒二領、白苧布帖裏 三領、黑麻布帖裏一領、大紅段子護膝一雙、鴉青廣條兒一腰、鹿皮靴、黑斜皮靴、馬皮靴各一雙、鴉青段子貂皮耳掩一事、鞍具馬一匹、黑細麻布、白細苧布各二十四、人參二十斤、油毛七卷、摺扇四十把、彩花席四張 寢席二張、白厚紙十卷、布幃幕一事、鍮三合、羅鍋一部、鍮行器一部、鍮孟子一事、裘衣一部、油籠十事、毛馬粧

- 一部、弓箭帽二件、甲一領、兜鍪一頂、弓俗箭家、弓箭具一部、馬脚匙三十部、中刀子一部、理馬諸緣一部、火鑽隧一事、結弓瘳皮十張、環刀一把、藥囊一事贈之.
- 29) 成宗實錄 20卷, 3年 7月 17日
- 30) 成宗實錄 153卷, 14年 4月 27日 吐環刀子具條帶各一、有文衣服各一、加別賜以慰其意、以勸將來、何如?”從克培議.
- 31) 成宗實錄 187卷, 17年 1月 9日 右衛副會長羅下使送童巨右同等五人辭、別賜童巨右同四段袂搭胡一領、大紅四段腰線襦帖裏一領、大紅多繪條環 綵囊具一腰、刀子一部。李別郎哈等四人、各匹段襦(貼)〔帖〕裏一領、燦紅多繪條環綵囊具一腰、刀子一部。羅下處、賜送四段襦帖裏一領、染色綿紬表裏二襲.
- 32) 成宗實錄 186卷, 16年 12月 28日 建州中衛會長李達罕使李柳時哈等辭。賜柳時哈、沙豆二人各鞍具馬一匹、無紋段子袂搭胡一、有紋段子大紅腰線襦帖裏一、大紅多繪條環綵囊具一、刀子一。趙奴才、黃羅將、李哈土三人各無紋段子襦帖裏一、半紅多繪條環綵囊具一、刀子一。達罕處、段子襦帖裏一、染紬表裏二。柳時哈不受賜馬、曰:“此馬齒落老甚、豈殿下所賜乎?雖更留一朔、吾不還歸。”命換給.
- 33) 中宗實錄 94卷, 35年 11月 17日 去十月初七八日、東宮修理後、世子白玉半束帶一部、白玉吐環多繪俱一部、闕失不得之際、昨日二鄭良嬪 婢女尙衣院和匠崔銀石妻倫伊、白玉帶錢二箇持來放賣、此乃世子闕失玉帶錢也。驚愕而詳密問之、則崔銀石曰:‘尙衣院玉匠梁億萬放賣.’問于梁億萬則曰:‘尙衣院綾羅匠丁論孫放賣.’問于丁論孫則曰:‘東宮修理時、以內瞻寺膠未進排事入去、令內瞻寺書員玉同、遮立東宮廂庫門而偷取云.’玉帶及大紅廣多繪、寬納矣、白玉吐環、則放賣於西小門外兼司僕崔朝臣家、玉帶錢、分在于其同壻司圖署奴銀伊、玉匠朴千石·梁億萬等家云
- 34) 宣修實錄 26卷, 25年 4月 14日
- 35) 顯改實錄 22卷, 11年 2月 12日 庚午/藥房都提調許積等率醫官、入診于集祥殿、核處成濃、仍爲受鍼、畢、引見領·右相、戶曹判書權大運、禮曹判書朴長遠、大運稟定淸使贈賂之物、蓋淸使及通官輩、意望甚大、不滿於例贈、要索別贈、故上命別贈銀器、又贈人參、豹皮、胡椒等物、所贈白金亦二千餘兩、長遠以世子冠禮初出時服色仰稟、上曰:“所謂時服、卽常時所着之服、黑團領似非其服、予於辛卯冠禮時、以鴉青直領、條帶、爲初出之服矣.”領相鄭太和曰:“請依此例爲之.”上可之.
- 36) 英祖實錄 57卷, 19年 4月 14日 舊制、冕服絳紗袍大帶所繫小帶、用深青絲條兒、肅宗三十九年大帶釐正時、依古禮用深青廣多繪、後綬則用中國紅花錦。上之二十二年禁紋綬後、令尙方織造赤、青、玄、縹、綠緞而無紋、凡十五條下端網垂、仍以後綬所織絲結之分爲三段.
- 37) 英祖實錄 57卷, 19年 4月 14日 舊制、冕服絳紗袍大帶所繫小帶、用深青絲條兒、肅宗三十九年大帶釐正時、依古禮用深青廣多繪、後綬則用中國紅花錦
- 38) 김시재 (2008). 앞의 책, pp. 26-33 참조.
- 39) 위의 책, p. 31.
- 40) 위의 책, p. 31.
- 41) 宣祖修正實錄 卷26 宣祖 25年 4月 庚寅、命百官戎服
- 42) 이은주 (1998). 김홍조(1461-1528) 분묘의 출토복식을 통해 본 조선전기의 염습의에 관한 고찰. 판결사 김홍조선생 합장묘 발굴조사 보고서, 영주시, p. 29, p. 222.
- 43) 고부자 (1999). 日迎 出土 高麗, 申氏, 복식, 17, pp. 41-58.
- 44) 이순원, 유효선, 조우현 (2000). 이석명묘 출토복식 조사 보고서. 서울대학교 박물관, p. 119.
- 45) 송미경 (2004). 심수륜 묘 출토복식에 관한 고찰, 용인출토 창송 심씨 정이공과 심수륜 묘 출토복식, 경기도 박물관, pp. 48-50, pp. 110-161.
- 46) 이은주 (2000). 일선문씨와 이응태 묘 출토복식 고찰, 안동 정성도 일선문씨와 이응태 묘 발굴조사 보고서, 안동대학교 박물관, pp. 170-241.
- 47)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2006).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2 복식·자수권, pp. 254-257.
- 48) 山岡一晴 (昭和 63년). 앞의 책, p. 15.
- 49) 자료검색일: 2009.7.1, 자료출처: [http://sts.kahaku.go.jp/hitnet/index.php?PMode=dafault&od=1&s\\_and=%C5%EC%B5%FE%7%0%B9%A9%2%E7%B3%D8%A1%A1%B2%CA%B3%D8%7%EE%CA%AA%B4%DB&s\\_or=&s\\_not=&APage=3&PSize=10&PMode=dafault](http://sts.kahaku.go.jp/hitnet/index.php?PMode=dafault&od=1&s_and=%C5%EC%B5%FE%7%0%B9%A9%2%E7%B3%D8%A1%A1%B2%CA%B3%D8%7%EE%CA%AA%B4%DB&s_or=&s_not=&APage=3&PSize=10&PMode=dafault)
- 50) 김주현, 조일순 (2002). 아름다운 매듭·염색·광다회, p. 82.